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2차**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3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 문제

지문 [가]와 [나]를 이용하여, [마]와 [바]를 설명하고, 지문 [다]와 [라]를 이용하여 [바]에서 언급된 '통큰치킨'에 대해 논하라.

## 제시문

[가] 공급 곡선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량이 변화하는데, 이는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와 구분하여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이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각각의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공급 곡선의 이동이 곧 공급의 변화이다.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공급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나]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우선, 합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과 품질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과소비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상품이나 부당한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인권,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다] 한 사회의 정치·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 반면에 경제 논리는 효율성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자원(예산)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유권

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재구성

[라] 우리는 흔히 옳은 행위에 대한 견해나 확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그다음 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혼동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으로 가는 기폭제다. 이러한 긴장에 직면했을 때, 옳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조정하기도 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 치킨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크게 공급과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치킨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닭고기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계(도축한 닭) 평균 가격(9·10호)은 kg당 3340원이다. 10년 전인 2012년(3564원)보다 되레 6.7% 싸다. 그렇다면 인건비·배달료 등 운영비 부담이다. 올해 국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보다 6.6% 올랐다. 현 정권이 들어선 2017년보다 41% 상승했다. 여기에 배달비 부담이 커졌다. 배달 매출은 배달 중개업체·앱에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지불해야 해 매장(포장) 매출보다 이익이 적다. 2만원짜리 치킨을 팔아도 실제 손에 쥐는 것은 1만 6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매출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다 배달비도 오르고 있다.

- The JoongAng 2022년 1월 24일

[바] 고물가 현상이 지속 중인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불매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프랜차이즈가 올해 상반기 잇따라 가격 인상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배달비 논란까지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19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Boycott Franchise Chicken)’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공유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시 포스터를 기반으로 만든 ‘치킨 불매운동 포스터’다. 포스터를 만든 이는 치킨 사진을 게재하고 하단에 ‘주문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또 ‘통큰치킨을 잃고 12년, 치킨값 3만원 시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통큰치킨은 지난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와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할인 자체 요청과 치킨 프랜차이즈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 매일경제 2022년 7월 19일

##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1. 출제의도

이 문항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가격 상승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교과목에 수록된 공급의 변화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 교과목에 수록된 소비자의 올바른 행동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대응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제시문을 통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중 어떠한 논리가 적용되었는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한편, 시점에 따라 변증법적 관점에서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문항은 복수의 제시문에서 설명된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논리적 절차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공급 곡선을 정의하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출처: 『고등학교 경제』, (주)씨마스, 61쪽, 관련 개념: 공급의 변화)

제시문 [나]는 개인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함양해야 할 자세를 기술한다.  
(출처: 『고등학교 통합사회』, (주)지학사, 148쪽, 관련 개념: 소비자)

제시문 [다]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제시한다.  
(출처: 『고등학교 독서』, (주)천재교육, 118-119쪽, 관련 개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제시문 [라]는 기존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에 발생하면 새로운 원칙이 정립될 수 있음을 변증법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출처: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53쪽, 관련 개념: 변증법)

제시문 [마]는 치킨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오피니언: 분수대 치킨”, The JoongAng 2022년 1월 24일 The JoongAng 칼럼, 관련 개념: 가격 상승의 원인)

제시문 [바]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치킨에 대한 소비자 및 경쟁업체들의 태도가 시대에 따라 변모하였음을 대조한다.  
(출처: ““프랜차이즈 치킨 안 먹어”... 불매운동 조짐에 자영업자 ‘전전긍긍’”, 2022년 7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관련 개념: 불매운동)

###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 [채점기준]

- 제시문 [가]로부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소비자의 덕목을 이해하고, 제시문 [바]와 연결시켜 언급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로부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문 [바]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로부터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 기존의 원칙이 탈바꿈할 수 있음을 변증법적 논리로 이해하고, 제시문 [바]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로부터 배달 비용 증가에 따른 공급의 변화가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가?

#### [유의사항]

- 제시문 [가]는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가], [마]에서 생산요소 가격의 증가가 상품 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바]의 과거의 상황은 제시문 [다]의 정치 논리가 적용된 예이고, 제시문 [바]의 현 상황은 제시문 [다]의 경제 논리가 적용된 것임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바]를 제시문 [라]의 변증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음

### 4.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공급 곡선의 이동, 즉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마]는 치킨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배달비 증가를 지적하는데, 이는 [가]의 생산 요소 가격의 증가에 대응된다. 즉, 치킨 가격의 상승은 생산 요소 가격의 증가에 따른 공급 곡선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제시문 [나]는 합리적 소비 실천, 무분별한 과소비 지양, 소비자 주권 확립 등이 소비자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임을 설명한다. [바]에 소개된 치킨 불매 운동은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의사를 천명한 예로, 소비자들이 비프랜차이즈 치킨을 구매함으로써 합리적 소비 및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바]에 언급된 10여년 전 ‘통큰치킨’이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된 사건은 정치 논리의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통큰치킨’의 유사 제품들이 재출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대로 반대 의사 표시를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업계가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선부르게 정치 논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라]는 기존의 원칙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변증법적 논리로 설명한다. 과거에는 ‘통큰치킨’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기반하여 경제 논리를 펼쳤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일종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통큰치킨’의 유사 상품이 논란을 딛고 계속 판매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